

크스님 수행한담

“죽다가 바로서야



◇영결식장인 불국사 범영루앞에서 월산스님의 법구가 부처님께 하직사를 하고 있다.

월산스님 연보

△1912년 5월1일: 합남 신흥군 동상면 원평리에서 경주최씨 흥규(興圭)거사와 모친 조(曹)씨 사이의 3남2녀중 둘째로 출생.
△43년: 안변 석왕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44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45년: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48년: 청담 향곡 자운 성철스님등과 문경 봉암사에서 공주정규(共住淸規)를 만들어 교단혁신을 위한 승중진작.
망월사 수선안거이후 41안거 성만.
△54년: 금오스님모시고 교단 정화불사에 앞장섬.
△57~61년: 법주사 신홍사 동화사주지 역임.
△68년: 금오스님으로부터 인가받고

조계종 덕숭선백 계승, 법주사 조실에 추대.
△69년: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70년: 한국종교협의회 초대회장 취임.
△74년: 불국사 주지 취임. 불국사 중창 및 불국신원 개원.
△78년: 조계종 제6대 총무원장 취임.
△86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취임.
△88년: 법보신문 창간.
△89년: 남북통일 기원 통일대중(토함산, 6천관)조직.
△97년9월6일 불국선원에서 열반할 때까지 불국사 불국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괴산 공림사 삼인선원,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 속리산 북한암선원, 영일 자장암 운제선원, 산청 정각사 죽림선원, 울진 불영사 천축선원, 속리산 수정암선원, 문경 운림암 사불선원, 경주 흥륜사 천경리선원 등 제방 선원의 조실로 도제양성.

추모시

回向 月山大宗師

高 銀(시인·본지 논설고문)

안으면 천고의 범종(梵鐘)이요
일어서면 9층탑이 셤습니다.
월산대종사

깊은 날 부만주 별관 떠돌며
그 눈보라 속
가슴 벅찬 사람
대지의 사람이 셤습니다.

해방 직전 돌아와
한 나그네의 <금강경> 독송에 눈 떠
울거나
생사를 뛰어넘자고
산중에 몸을 던지 셤습니다.

경허
만공
금오의 법백으로 하여금
버린 것은 망상이요,
가진 것은
이 켜고 하나.
보름달 흰히 두들실 때 몰랐으니
만상의 괴괴함이며!

동방의 선풍(禪風) 새로 짓기 위하여
그 결사로
청담 성철 향곡 등과 한 뜻이었고
동방의 법 떨치기 위하여
그 정화로
관학 구산 관음 월화 정사 등과
애오라지 한 몸이 셤습니다.

그 많은 진수성찬의 말씀
삼가 셤습니다.
그 많은 청진법륜 활과 방
그대로 두어 잠들게 하 셤습니다.
이토록 월산스님
새 때 돌아간 작막일 줄이야.

거기 당신의 중도(中道) 가운데
달고 달은 신발 한 짝이 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후령 쪽입니까
덕을 쪽입니까
개고된 쪽
홍안령 쪽입니까
오늘 일은 포함(呑呑)회상입니다.

한국선종불교의 큰 선맥(禪脈) 성립당 원산대종사가 9월6일 세수 85세, 법랍 54세로 원적에 드셨다. 이 수행한담은 화가 이호신씨가 국내 원로스님들을 직접 만나 법을 묻고 근영을 스케치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기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작가 이호신씨는 '이제 크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으니 책으로 엮기 전이라도 그분의 선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현대불교 독자에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호신씨가 크스님을 만난 시기는 95년 늦은 가을날이었다. 스님의 유덕을 기리는 뜻에서 추모 수행한담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화가 이호신씨가 그린 월산스님

누림이 등짝 같던 들녘이 회색빛으로
바래고, 단풍 또한 제 빛깔이 겨운 시간
을 헤쳐 불국사 일주문에 이른 어느 가을
을 저녁이었다.
토함산 불국사를 등에 지고 바라보니
멀리 단석산 아래 선도산, 송화산 그리고
남산자락이 농담(濃淡)의 깊이를 나누고,
노을은 다홍빛에서 선연한 주홍빛으로
하루를 찬란하게 마감하고 있었다.
이미 출입이 통제된 불국사 일주문 앞
에서 지난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월산
(月山) 크스님의 친견을 위해 달려온 오
늘의 인연이 마주할 또다른 인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
천년 고찰 불국사의 오늘을 지키는 월
산 크스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불국사 뒤란의 '불국선원'을 찾아 크
스님을 뵈고자 하니, 일몰 이후에는 일절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사자 스님
의 말이 뒷안 소리에 실려온다. 나 또한
그 대답을 예견이라도 한 듯 무덤덤히
사자 스님이 이끄는 대로 선원 아래 요
사체에 짐을 풀고 마을로 내려가 늦은
저녁을 들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불
국사는 객들 때문에 꽤나 분주했을 것
같다. 강택민 중국 주석이 다녀간 모양인
데, 이제 산사의 정적을 되찾을 시각이
되자 식당의 생중계 TV 화면에는 구치
소로 향하는 노태우 前 대통령의 모습이
아날이 국치일(國恥日)임을 증언한다. 세
상이 아무리 막돼먹었기로 국가 원수가
백성의 간을 잘라먹었다니.....

스승한 기본으로 어둠이 짙은 토함산
기슭을 오르자니 별이 성근 숲술 아래
불국사가 잠들어 있고, 다시 선원에 이르
러 앞산을 바라보니 인공의 불빛이 자연
의 별빛과 어우러져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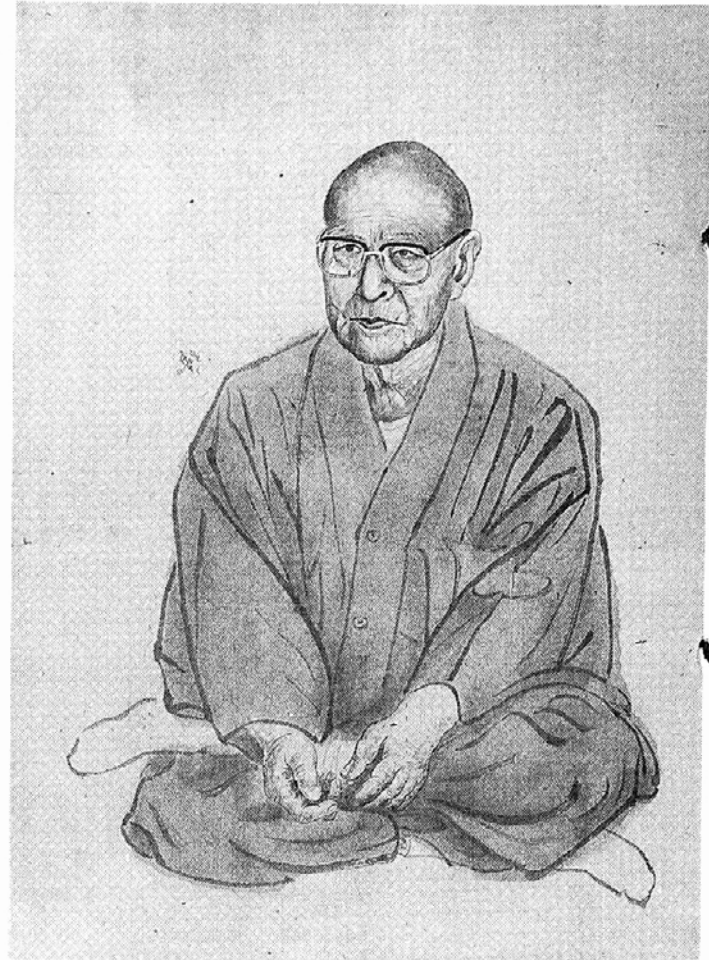
인공의 불빛과 자연의 별빛, 이 부조화
의 조화에서 나그네는 세속의 삶과 산사
의 정진은 또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
운가를 헤아려본다.
이튿날, 쓸 것도 없는 트랙의 비질 소

리에 깨어나 대밭을 병풍처럼 두른 불국
선원(佛國禪院)을 찾았다. 현액은 강암
(剛庵) 송성용(宋成鏞)의 글씨인데 그아
래 주련의 글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도자불입(悟道者不入)'. 마땅히 나
그네의 발길도 꺾히 수락되리라.

경봉 스님의 현액이 걸린 '열화실' 마
당 가운데에 선, 석가탑을 그대로 본떠
만든 3층석탑이 불국선원다운데, 크스님
의 첫인상은 호방한 풍모의 선지식이라
는 느낌이다. 안경테 위로 수려한 흰 눈
썹이 선승의 위의를 더해주나 조금 거동
이 불편해 보였다.
20년 전(1974년)에 직접 선원을 지으시
고 8년 전에 석탑을 조성하셨다는 말씀
을 시작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든 나그네에게

“ 시대가 바뀌어도
가치관과 계율
지켜져야 합니다
불교의 궁극은
중생의 정신적 초탈 ”

질문을 허락하신다. 결례를 무릅쓰고 방
안을 둘러보니 창호지로 걸려진 아침햇살
이 방안을 따스하게 밝혀 주고 향로와 다
기, 서안과 병풍 등이 스님의 성품을 내
비치듯 운치를 더해 주고 있었다.
말씀을 나누며 친견의 의미를 더하고
자 초상의 밑그림을 그릴 참인데 스님께
서는 한사코 사양하시니 일은 시작부터
낭패다. 그럼 그러는 일이 없었더라 말보
다는 붓놀림이 쉬운데 이 일을 어찌라.
생각은 구멍이 나고 말뚝은 딱 막힌다.
하지만 어렵사리 찾은 길 그냥 물러설



◇한국 선종불교의 큰 선맥 월산스님.

수 없는지라 몇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먼저 '경주 고속전철 사태'에 관한 불국
사 조실스님으로서의 소견을 여쭈었다.
"그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말들이 많아
요. 따질 것 없이 근본적으로 문화재는
보호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지요. 하
지만 그간 경주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
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문화 시민으
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
니다. 지금 석굴암과 함께 불국사가 유네
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또
문제가 달라질겁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문
화유산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만 해서는
안되는 현실이 될테니까요. 온 인류의 자
산이요, 문화 유산으로 마땅히 받아들여
야 하니까요. 경주의 문화는 결코 경주
시민의 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험사
리 도심내 전철 통과는 되지 않을 것입
니다."
스님께서는 고속전철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우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문제는 자연스
레 문화 유산 보호 차원으로 전개될 것
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가 본다.
- 스님, 불교의 전통에 비추어 오늘의
불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요.
조심스런 질문에 스님의 즉답은 명쾌
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의 가치관과 계
율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승은 특히 이점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 또한 똑같아요. 예전처럼 불
(佛)·법(法)·승(僧) 삼보를 따라야 합
니다. 요즘은 보면 절에 가서 점이나 보
고, 병을 고쳐준다는 절이 있는 등 사된
불교가 횡행한다 하니 걱정이 됩니다. 불
교는 인간의 정신적 초탈의 궁극임을 바
로 알아야 합니다."
- 애됐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대

생활 속의 불교 138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으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
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 번 잘못 쓰는
데서 그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
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
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기
초로 하여 분별의 생각을 짓는다. 그러나 우
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걸 모습에 불과하다. 이른바
본다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가시권 밖은 예시당초 볼 수 없으며 걸걸걸
안쪽도 볼 수 없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
정한 주파수를 지닌 소리 밖에는 듣지 못하
고 그나마도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다. 촉감으로 느끼는 것 및

보는 것 냄새 맡는 것도 다 그렇다.
드러난 형상 이외에 그 속내를 알지 못한
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관은 사물의 실상 중
에 극히 제한된 부분과 맞닿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고집을 부린다. 다 보
았고 다 들었으며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알고 더 보려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보았다고 단
정짓는 사람이 무엇을 더 보려고 하겠는가.
다 안다는 사람이 무엇을 더 알고자 하겠
는가. 결과는 끝내 실상을 외면하고 자기 방식
만을 고집하는 삶으로 남게 된다.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감춰진 보이지 않
는 세계를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
들리는 세계, 부딪히는 세계를 넘어 그 뒤
쪽을 느껴보고 노력해야 한다.
선사들께서 눈 아닌 눈, 귀 아닌 귀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세계를 느껴
야 한다. 그러자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경계, 드러난 세계 이면의 속내를 느껴야 한
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보고 들으려
해야 한다. 마음이 아니고서는 걸 모습의 벽
을 넘어설 수가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五蘊)이 공한
경계는 마음의 눈으로 비취볼 때 비로소 가
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들은 대체로 그 반
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경계,
내 귀로 들은 경계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집
착한다. 그 밖의 세계는 아예 수용할 생각조
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남이 본
세계, 들은 세계를 긍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본래 광대무변하여 울타리가 없는
데도 그런 내 마음을 내가 본 세계, 내가 들
은 세계에 묶어두려고 한다. 스스로 통 속에
갈려하려고 스스로 갈대기 속으로 좁디좁게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소견머리가 좁은 삶을 꾸려
가고 있으며 관념세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
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
록 반대로 통 좁은 인간, 편협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마음이 좁아지면 세계가 좁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계가 넓어진다. 경계를 보고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마음을 넓

게 좋게 돌리면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저금까지 미처 느껴지 못했
던 세계가 분명 새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키우면 어찌 되는가. 마
음은 그 순간 화탕지옥으로 빠져든다. 울화가
치밀고 미운 마음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솟
구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원컨대 이 몸이 화탕지옥에
들게 되면 그 화탕이 결코 소멸되지 하옵소
서.' 하고 발원하지만 돌아서서는 스스로 화탕
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뛰어들려는 게 우리
들의 모습이다.
코앞에 것을 보지 말고 더 멀리 보라. 발
밑을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라.
목전의 이익을 좇지 말고 더 높게 멀리 보
라.
사물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더 깊게 그 속
내를 보려고 애를 써라. 한 생각 돌리고 듯
돌리고에 따라 행과 불행, 극락과 지옥이 갈
아드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분명히.

협 찬 : 이 관 형

